

# “세계적인 정보센터로 발돋움할 터”

강원정보센터는 정보의 공유를 통한 아시아 정보국가 건설에 기초를 두면서 세계적인 정보센터로 발돋움한다는 거대한 목표를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역간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강원정보센터를 살펴봤다. <편집자>

## 설립목적

강원정보센터는 ▲다가오는 21세기의 정보화 사회의 혁신적 발전을 근간으로 정보화의 수준향상과 경쟁력 강화의 기초환경을 제공, ▲정보화의 활용방법을 조기 정착 시켜 국민, 기업, 정부의 경쟁력을 보강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효율성 제고, ▲정보의 정책적 실천의지와 부합하여 실용적인 정보교류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간, 계층간의 격차해소를 위한 지역정보화 추진 선도, ▲나아가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여 아시아 정보국가 건설에 기초를 둔 세계적인 정보센터로서 발전을 거듭하여 정보중심국가로서의 일익을 담당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 현재 현황

강원정보센터의 업종은 <표 1>과 같으며 서비스 내용 및 형태는 <표 2>와 같다.

## 당면한 문제점 및 개선점

KITEL은 1995년 6월 15일부터 하이넷-P 메뉴를 통해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통신서비스 업체와 마찬가지로 텍스트 위주로 한 서비스 방식이다. 이 방식으로는 그림이나 소리정보는 물론, 그림과 음성이 모두 포함된 동영상 서비스가 불가능하고, 구현하더라도 무척 복잡하고 힘든 방법으로 서비스해야 한다.

현재 인터넷의 WWW 서비스에는 이런 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다. KITEL에서는 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웹 BBS 환경 형태로 변환하여 1997년 3월말부터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또한 KITEL 서비스를 더욱 효율적

으로 사용토록 지원하는 KITEL 에뮬레이터를 개발중에 있다. KITEL 에뮬레이터는 97년도 상반기에 개발을 완료하여 하반기중에 무료로 배부할 예정이다.

PC통신의 이용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접속회선의 불량 및 회선 부족, 접속회선 속도의 저속이다. KITEL에서는 이의 해결책으로 이용자가 가장 많은 수도권에 서울사무소를 개설하여 한국통신망인 하이넷-P 512K급 이상의 회선 6회선을 확보했다. 또한 고속망 이용자를 위해서는 33,600bps의 고속노드를 현재 1차적으로 300회선의 고속노드를 개통직전에 있고, 올해말까지 3천회선을 개통할 예정이다.

서울사무소에서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하면 약 1,500명 이상이 동시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사무소의 서비스 개시는 이달부터로 계획중이다. 또한 T1급의 인터넷 회선도 같이 개통할 예정이다.

PC통신의 이용시 걸림돌로 대두되는 문제는 이용료이다. PC통신을 이용시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전화선을 이용하여 할인혜택이 있는 하이넷-P 또는 데이콤 망으로 접속하거나, 일반전화료가 부가되는 고속망을 통하여 PC통신 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PC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책정되는 서비스료가 별도로 부가된다.

KITEL에서는 현재 서비스료를 무료로 책정하여 회원들에게 서비스료의 부담만은 덜어주고 있다. 그러나 전화료는 한국통신과 데이콤사에서 제공하므로 KITEL로서도 어쩔 수가 없다. 전화료 및 서비스 사용료에 대한 가격인하 정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여러 업체가 PC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업체간에는 서로의 경쟁의식의 팽배 및 회선료 부담의 문제



**<표 1> 강원정보센터 개요**

회사명	(주)강원정보센터	대표자	김문환(金文煥)
법인설립일자	93.11.15.	법인등록번호	141111-0007035
업종	프로그램/DB 개발, 정기간행물, 부가통신사업, 데이터베이스업		
사업장 소재지	본사 : (210-111) 강원도 강릉시 포남1동 1096-6 (0391) 652-8161, Fax. (0391) 652-5222 사무국 : (158-050) 서울시 양천구 목동 406-207 청보빌딩 4층 02) 652-3092		
종업원수	57명	사훈	아름다운 사회건설

**<표 2> 서비스 내용 및 현황**

회원수	7만명(97년 1월말 현재)	월평균 접속수	70만건(18만 5천시간 사용)
KITEL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ITEL BBS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5년 6월 15일 하이넷-P 메뉴를 통한 서비스 실시 (텍스트 위주의 서비스)</li> <li>· 1997년 3월말부터는 웹 BBS 환경의 형태로 변환하여 서비스 예정</li> </ul> </li> <li>■ DB 개발/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생활거래정보 : 전국 생활정보신문의 온라인. 실시간 거래 정보</li> <li>· 농업지리정보시스템 : GIS-Van DB를 위한 농업지리정보시스템 설계 및 구현</li> <li>· 강원지역종합정보 : 강원도내의 산업/기관/관광 등의 정보</li> <li>· 강원농업정보 : 강원도내의 농업에 관한 정보</li> <li>· 전국교육망 서비스 : 전국 초.중.고 700여개 학교망 서비스 (강원도는 모든 학교가 개설하여 운영중)</li> <li>· 전국이업종교류연합회 정보 : 전국 3,000여개의 전국이업종교류 연합회 회원사의 기업 DB 및 상품정보</li> </ul> </li> <li>■ 인터넷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일자 : 1996년 2월 23일부터 서비스</li> <li>· 홈페이지 구축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ITEL 홈페이지 구축</li> <li>- KITEL 회원들의 홈페이지 구축</li> <li>- 강원도지사 최각규 홈페이지 구축</li> <li>- 강원도교육감 김병두 홈페이지 구축</li> <li>- 전국교육망의 각 학교 홈페이지 구축</li> </ul> </li> </ul> </li> <li>■ 연동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데이콤의 천리안</li> <li>· (주)한국PC통신의 하이텔</li> <li>· 열린정부 알림마당</li> <li>· 중소기업정보은행</li> <li>· 산업기술정보원</li> <li>· 한국통신 강원본부 원주 치악마을</li> <li>· 해남지역정보센터</li> <li>· 제주지역정보센터</li> <li>· 거창지역정보센터</li> </ul> </li> <li>■ 병역특례지정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일자 : 1994년 11월 29일</li> <li>· 지정분야 : 전자·통신·정보처리 분야</li> </ul> </li> </ul>		

로 각각이 비슷하거나 전혀 다른 접속루트를 가지고 있다. 여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해당 서비스의 접속을 완전히 끊은 상태에서 다른 서비스로 접속을 시도해야 한다. 이의 해결책으로 KITEL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하이텔, 천리안을 비롯한 타 통신서비스와 연동서비스를 제공중이다.

민영업체가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환경을 구성하여 제공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회선료를 국영기업에 회선료를 과다하게 제공하고 있는 것은 뭔가 개선돼야 한다.

01410 등의 공중망 회선 부족 및 속도부족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일반전화선을 이용함에 있어 향후 지역의 균형 발전을 지향하는 정보화 정책이 수반되지 않을 때는 정보화로 생기는 지역간의 불균형이 나타난다. 이의 예방책으로 현재 통신 통신요금 부담이 대도시보다 지역이 과증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개선함을 동반하는 정책이 꼭 수반되어야 한다.

경제적 소득으로 보아 빈부의 격차로 나타난 문제역시 정보화로 빈부의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의 해결 방안 역시 수반된 정보화정책이 집행되어야 한다.

부가통신업에서 통신요금을 유발시켜 가면서 엄청난 운영비를 투자하고 있음에도 통신요금 유발로 소요된 비용까지 지불함을 개선하여 부가통신업체에서 유발시키는 비용정도라도 부가통신업체에 지원이 요청된다.

**정부의 지원방안**

앞에서도 제시한 바 있는 통신료의 절감이 절실히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는 국내 PC통신 서비스 제공업체의 서비스료와 비슷하거나 적고, 전화료는 월 2만원 정도로서 얼마를 사용해도 같은 요금이 부과되는 정액제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통신료 부분은 정보화 추진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에서 강력히 지원해야 한다.

PC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는 한국통신망이나 데이콤 망을 통해 서비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들 망을 통하여 서비스하는 업체들에게는 상당한 회선료가 부담되고 있다. 때문에 한국통신은 사용자들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